

광주 광산구 기업 만족도 전국 1위

대한상의, 228개 지자체 조사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 성과
영광군 경제활동친화 개선 1위

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 광산구로 조사됐다. 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개선도 1위는 영광군이 차지했다.

또 광주 북구는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산업단지 분야에서 충남보령시 등 28개 지자체와 함께 1위에 올랐으며, 환경규제 분야에서는 보성군 등 7곳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지자체 행

정에 대한 만족도를 다룬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업체감도 평균 점수가 작년보다 0.2점 상승한 70.1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역별로는 광주 광산구가 1위, 서울 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 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에 있었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 매월 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듣고 해결해줬다.

작년부터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는 경기 양주시가 1위를 기록했다. 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63위로 159단계나 올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시 '민관 협치·공감 행정' 전남도 'SOC 확충 역량 집중'

2017년 시정·도정 방향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2017년 정유년 시정과 도정 방향을 설정했다. <관련기사 5면>

윤 시장은 민·관 협치와 맞춤형 돌봄, 좋은 일자리 등 '공감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이 지사는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앞당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28일 광주시정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은 더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사회로의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면서 "정유년 새해에는 시대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행정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시정의 주요 운영 방향으로 ▲시민주권의 자치공동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인권·민생·안전 최우선 ▲공정한 노동과 좋은 일자리 창출 ▲친환경차·에너지 신산업·문화콘텐츠 중심의 산업지형 재편 ▲사람과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모델 구축 등을 꼽았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이날 전남도정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새해에는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새해 국고예산을 2012년 여수 엑스포 이후 처음으로 6조원 넘게 확보했고 SOC 예산은 작년보다 40% 늘어난 1조1672억원이 반영됐다"면서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에 이어 몇 년 안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열륙·연도교, 흑산공항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 전남을 찾는 사람이 더 늘고 지역경제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광역별 관광자원 특화 통한 관광객 5000만명 시대 ▲좋은 일자리 창출 ▲에너지 등 280개 기업 유치 목표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가공·유통 발전 통한 농어업 소득 향상 ▲취약계층 배려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건설 등을 주요 도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특검,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파헤친다

재단설립 대통령과 공모·뇌물죄
세월호 7시간·문화계 블랙리스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명 속도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활동에 들어간지 1주일만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명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 <관련기사 3면>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 사안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최순실(60·구속 기소)씨와 박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및 뇌물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의료농단', 이른바 문화블

랙리스트에 따른 '문화농단'을 밝히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최순실 씨 일가의 부정축재 의혹을 규명하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해 결과도 주목된다.

지난 21일 현판식과 함께 정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28일 새벽 1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문 전 장관을 다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삼성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라는 지시나 요구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특검팀은 28일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과 자택, 관련 병·의원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의료 농단'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과도 관련돼 있어 특검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문체부 인사 전횡' 등 김 전 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및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북 트리' 책 교환해 가세요 28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북(book) 트리' 참자는 책 도서교환 행사에 참가한 학부모와 아이들이 '북 트리'에 전시된 각종 도서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 '북 트리' 책 도서교환은 집에서 쓸모가 없는 책을 행사장으로 가져와 북 트리에 달린 책과 맞교환하는 행사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야, 개헌논의 본격화... 특위 36명 합의

여야는 28일 개헌특위 정수를 모두 36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새누리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개혁보수신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정당별 제1

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현재 원내 1당이 민주당이기는 하나 지난 5월 원구성 협상 당시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주기로 한 만큼 그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각각 3개씩,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에 1개씩 배분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인건강타운 '소셜댄스' 인기 ▶6면
수술후 재활 KIA 윤석민 인터뷰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시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시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효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